

# 우유전쟁

한 경 희 죽전중학교 교장



## I. 들어가면서

(07/18(화)AM08:24)

오늘은 우유급식이 있는 날입니다.  
각 학급에서는 8시 35분까지 우유를 모두 가져가 마시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실 -

아침에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더니 팝업 창에 전 교직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뜬다. 급식에 우유가 함께 나오면서 우유를 마시게 하는 문제는 또다른 큰 일거리다. 풍요의 세대에 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우유는 '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인가보다.

"여기 좀 보세요."

학교와 담을 사이에 둔 이웃집 주인의 하소연이다. 마당과 옥상에 터진 우유팩이 나뒹굴고 있었다.

급식으로 나눠준 우유를 마시지 않고 이웃집에 던진 모양이다. 교감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죄인인양 머리를 조아려 사과한다. 그리고 생각해 낸 게 아침에 전교생에게 일시에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는 20여년 전 학급 담임교사로서 우유를 먹이던 때를 떠올리며 생각해 낸 궁여지책이다.

## II. 학급학생 전원에게 우유 먹이기

한 20 여년 전, 학급 담임 시절이다.

그 때는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는 보조금이 있어서 시중보다 얼마간 값이 싼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급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때라 원하는 학생들만 신청을 해서 우유를 마셨다. 그 때 우리 반 재적생이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만 신청했다. 그 때도 매달 우유를 신청할 때마다 목에 핏대를 올리며 강조해서 다른 학급에 비해 많이 신청한 편이었다. 20 여년 전이라 해도 받은 우유도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들고 집에 가거나 장난감으로 던져 터트리는 일도 많고 남의 우유를 몰래 마시는 학생들도 있어 우유급식은 학교의 아주 귀찮은 균일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적극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는' 평소 교직원으로 우유를 학급 학생 전원에게 마시게 하자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완전식품으로서 우유', '우유가 건강에 좋은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형편이 어렵거나 마시는 습관이 안 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었다.

실은 필자도 우유 한 팩을 한 번에 다 마시면 팽만감 같은 것으로 하루 종일 불쾌했다. 이런 체질은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천천히 조금씩'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다소 강제성을 띤 이 방법은

서로 신뢰가 쌓인 담임과 학생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중학생 정도가 가장 적합할 듯한 생각이 들어 강제성을 띤 '전원 우유급식'에 들어갔다. 우선 전체에게 우유를 신청하게 하고 우유대금을 거의 강제로 내게 하였다. 몇 학생이 '돈이 없다'는 등, '우유 마시면 설사한다'는 등 구구하게 못 마실 이유를 대기도 했으나 '정 돈이 없으면 내가 낸다'고 하며 밀고 나갔다. 실제로 몇 학생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 얼마 안 되지만 1년 내내 대납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두 달이 흐르면서 생긴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몇 가지 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받은 장난삼아 도시락을 점심시간 전에 먹거나 남의 도시락을 몰래 먹는 장난꾸러기가 늘 골치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이 없어진 것이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온 학생들이 허기와 장난기가 합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침에 우유를 마시으로써 그런 욕구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쉬는 시간에 몰래 학교 밖으로 나가 군것질을 하는 학생들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늘 교문을 지켜 별을 주며 무단외출을 제한하곤 했는데 아침 우유급식을 전원에게 실시하니 우리반 학생들은 군것질을 위한 무단 외출을 하지 않게 되더니 나아가서는 외

출에 대한 욕구도 원천적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어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되었다. 우유급식 지도 상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학생에 따라서 2개 이상씩 주문하기도 하여 타 학급이 재적생의 반 정도가 주문하는데 비해 150%이상인 75~80개씩 주문하였다. 여름 방학이 끝나는 8월 말 대개 학교의 경우 9월부터 우유급식을 시작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우유 마시고 싶어요. 우유 빨리 주문해주세요'라는 아우성에 학교 전체가 우유를 조기에 주문하는 일도 생겼다.

### Ⅲ. 전교생에게 우유 마시기 지도

올해 유난히 우유를 창밖으로 던지는 학생이 많았다. 이른바 '우유 폭탄'이다. 우유를 받아서 마시지 않고 창밖으로 던지거나 이웃집에 던지는 것이다. 창밖에 던진 것은 운동장에 서있던 학생의 옷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웃집 거실의 유리창에 금을 가게도 하였다. 아무리 학생을 이해하려한다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나면 배고픈 시절을 보아온 기성세대는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보이기보다는 도저히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골 깊은 세대의 차를 절감하며 서글픔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본교 우유급식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지도하고 있다.

문제점 1. 우유를 공급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일과와의 불일치

학교에는 대량 배달하게 되므로 공급소의 사정에 따라 배달 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문제점 2. 단맛에 길들여진 기호성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더 많이 먹이도록

급식 시간	1-2교시 사이 쉬는 시간
지도 방법	담임교사가 입실하여 입장지도
지도 단계	1. 다같이 동시에 우유 팩을 열고 일제히 마시도록 지도 2. 순회를 통해 소화가 잘 안되는 학생이나 허약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몇 번에 나눠 마시도록 지도(이 때 우유도 씹어서 마셔야 한다고 지도)
지도 기간	1. 처음 2개월은 매일 입장지도 2. 다음 달부터는 간헐적인 입장지도
학생들의 변화	1. 무단 외출이 사라졌다. 2. 군것질 하는 습관이 줄어들었다. 3. 학생과 교사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4. 우유 마시는 습관이 정착되었다.

지도해 주기를 바라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딸기, 바나나우유 등 당이 첨가된 첨가우유를 좋아한다. 우유가 건강에 좋지만 잘 마시지 않으니까 집에서 먹이기가 힘들어 학교에서 먹여주기를 바란다.

### 문제점 3. 우유에 대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의 차이

기성세대는 우유가 단순히 200ml에 얼마인가 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귀한 그 무엇이라는 정서이기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버린다거나 장난을 하면 '죄받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비해 젊은 세대는 단지 얼마짜리 상품이고 '그깟 싼 것 버려도 장난쳐도 뭐 어때' 하는 생각이다.

### 지도 대책

우유 배달 시간을 아침 8시로 일정하게 하고 급식 지도는 반드시 담임교사의 임장지도로 8시 40분에 일제히 실시한다. 이 시간은 우유가 배달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선한 상태이고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꺼내는 번거로운 단계를 줄였으며 우유 냉장고를 설치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간은 담임교사가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조회를 하는 시간이며,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설친 학생이 뭔가 먹고 싶어 균것질을 생각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회가 끝나고 1교시 일과가 시작되는 짧은 시간에 무단 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의 문제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혀 있는 이때, 학교는 이제 공부를 시키는 데보다 학생들에게 먹이는데 더 주력을 해야 할 지경이다. 급식과 관련된 잘못은 당장 식중독으로 나타나고 정보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답게 그 소식은 온 나라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우유를 단지 급식 메뉴 중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목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어 가서 보고 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분들은 좋은 우유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여행 한 번, 외출 한 번 맘 놓고 못합니다. 그분들이 돈으로 환산될 우유값 얼마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고 생산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우유를 생산하며 그 우유를 마시고 힘을 낼 보이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쌀을, 밥을 그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으로 대하듯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우유 섞인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우유 한 컵이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모든 생산물이 다 그렇겠지만 우유와 쌀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남다른입니다. 이 점을 학생들에게도 특히 강조하셔서 우유급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회의의 맨 끝에 교장의 긴 잔소리는 이렇게 끝났다.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가치관이 다르다. 이는 학생과 관리자뿐만 아니라 젊은 신세대 교사와 나이 든 관리자와도 다르다. 학부모는 집에서 자녀들이 우유를 마시라고해도 안 마시는 걸 학교에서 대신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모 말도 안 듣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말이라고 하여 호락호락 듣는 건 아니다. 젊은 교사도 싫다는 걸 억지로 먹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과 기성세대가 갖는 우유의 '얼마짜리' 이상의 의미와 정서에 '얼마짜리'를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그들의 가치관과는 천지차이이다. 그래서 늘 글의 처음과 같은 전쟁을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그 성공사례를 회상하며 8시 40분에 본교는 일제히 1,000여명 전원이 우유팩을 뜯고 동시에 마시게 하고 나

중에 자유롭게 마시게 나눠만 주고 온 선생님들을 조용히 불러 다시 잔소리를 해댄다.

“오늘 바쁜 일이 생겼나 봐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다음에는 우유 다 마시는 거 다 확인하고 나와 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꼭 그렇게 하겠어요.”

교장은 늘 별걸 다 참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신념을 갖고 같은 잔소리를 한다. 학생을 위하는 일이므로.

#### Ⅳ. 제언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고른 영양공급을 위해 유제품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가 달라져 세대간의 골이 건널 수 없이 깊어져 생기는 문제가 많듯 학교도 그 옛날의 그 학교가 아니다. 학교에서 하면 무조건 학생을 위한 것이란 생각도 변했고, 학생을 위한 일도 '내 아이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거나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진행하면 항의와 제소, 법적 투쟁, 변상을 요구하는 시대다. 우유급식도 맛있는 것 달콤한 것에 길들여진 참을성 없는 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공 없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목장에서 '떡기도 아깝게' 생산한 '차식같은' 우유가 우유 폭탄으로 남의 집 우리장을 깨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 우유벼락을 내린다.

이에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 중 일정한 비율을 우유를 소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우유를 공급하게 한다. (본교는 다음 급식 계약에 이를 조건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정히 흰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유에 섞어 먹을 수 있는 첨가 제품을 일정량 함께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실제로 몇 학교에서 시행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자칫 흰 우유를 멀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와 지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